



부산 정관신도시 6월 총 7455가구 분양

# 무주택우선공급 75% · 용적률 169%의 저밀도 전원 도시

부산 최대 규모의 생태 신도시로 조성되는 정관신도시의 분양이 6월에 실시된다. 정관신도시는 녹지율 25%, 용적률 169%의 친환경 생태 도시로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정관신도시의 개발 방향과 업체별 분양 규모, 수요자들의 청약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에디터 김소진 자료 제공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6월 첫 실시된다. 정관신도시는 전체 사업비 9046억 원이 투입돼 기장군 정관면 일대 126만 평에 조성되며 2만 9000여 가구, 8만 6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정관신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7개 건설업체는 6월 9일 7455가구를 1차 분양한다. 주택공사는 2007년 7월부터 국민임대 7156가구, 공공분양 1114가구 등 모두 8270여 가구를 단계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6월 분양 물량 중 30평형 미만은 1256가구, 30~39평형 4367가구, 40~49평형 1371가구, 50평형 이상은 461가구이며, 평당 분양가는 500만~600만 원대로 예상된다. 이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 커서 부산 도심지와 비교할 때 저렴한 편이다. 실제로 분양대상 중 24평형 1760가구와 34평형 3397가구는 원가연동제 방식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정관신도시 내에는 좌광천(4.16km)을 중심으로 근린공원 11곳, 어린이 공원 18곳, 완충녹지 56곳 등이 곳곳에 들어서고 삼각산~중앙공원~달음산을 잇는 녹지축을 포함해 녹지율 25%와 평균 용적률 169%의 친환경 생태 도시로 조성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8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4곳과 특수목적 고등학교, 명문 사립학교가 설립될 예정이어서 교육 여건이 탁월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는 2008년 10월이면 정관과 해운대를 잇는 도로가 완공돼 부산 시내와 접근성이 좋아지고 동부산 관광단지와의 인접해 투자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단지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 제한 기간 따져 봐야** 한편 정관신도시에 청약하려는 청약자측 가입자라면 추후 공급 될 주택의 임대 아파트를 노리거나 예 · 부금 통장으로 전환해 청약할 수 있다. 이번에 분양되는 물량 가운데 무주택 우선 공급 규모는 전체의 75%에 이른다. 이 중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40%가 최우선 공급된다.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35%가 우선 공급된다. 최근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고 25.7평 이하 또는 30.8평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정관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300만 원, 30.8평 이하는 600만 원, 30.8평 초과~40.8평 이하는 1000만 원, 40.8평 초과는 1500만 원짜리 청약예금 통장이 필요하다. 청약부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3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정관신도시 1차 동시분양에서는 단지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전매 제한 기간이 각각 달라 수요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이번 분양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일(2006년 2월 24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정관신도시의 동시분양 물량 중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단지

